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설진배**, 김소희***, 송은희****

| 목 차 |

I. 서론	할과 초국가적 정체성
II. 이론적 토대	1. 사회적 연결망의 공백
1. 선행연구 검토	2.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
2. 초국가주의와 사회적 연결망	3. 초국가적 정체성의 형성
III. 연구방법	V. 결론
IV. 분석결과: 사회적 연결망의 역	

| 논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 담론의 중심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의 사회적 연결망 및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에는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연결망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이주 후에도 사회적연결망의 확장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 자존감,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한국인 되기는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수료.

**** 교신저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갖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녀에 대한 모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연결망의 구축과 유지에는 한국 내의 연결망 뿐 만이 아니라 모국과의 연결망 역시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초국가적 행위자로서의 실천에는 한국에서의 적응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곧 초국가주의와 적응 및 사회통합의 개념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초국가주의, 사회적 연결망, 초국가적 정체성, 사회문화적응

I. 서론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사상이 강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체류 외국인 수가 현재 1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2006년 1.1%에서 2011년 2.5%, 2012년에는 2.8%로 증가했다.¹⁾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500만 여명의 이주자가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신종호/최석현 2013). 이렇듯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의 다문화 담론의 중심에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존재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주요대상이었다고 사실상 한국에서의 다문화라는 단어는 결혼이주여성의 등장과 맥을 함께 한다. 또한 현재 미디어에서 주로 재현되는 '다문화가족' 역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역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주요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반영하듯이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두

1) 2013년 9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인 1,584,524명이며(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9월호), 결혼이주민(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은 2013년 1월 1일 기준 231,520명으로 남자는 25,151명, 여자 206,369명이다(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가치에 고착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한 가지는 모국에서의 가난을 탈피하고자 인신매매적 성격의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거의 팔려오다시피 한 불쌍한 존재, 혹은 가부장적인 한국 가족에 의해 갖가지 폭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이미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남편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부도덕한 존재, 혹은 모국의 가족 부양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한국 가족을 등지는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이미지이다.²⁾ 이러한 극단성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기와 개인의 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들을 이른바 다양한 조건이나 상황에 대처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는 다중적인 행위주체자로 바라보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록 한국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서열화에 따라 열등한 존재로 위치지어지지만 사실 결혼이주여성은 전지구화라는 현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것이 주지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에 무게가 쏠리다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글로벌화가 초래한 국가 간 격차, 그로인한 생존을 위한 이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소의 성행, 환상을 주입하는 미디어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도 있다. 또한 실제 결혼이주여성은 단순히 피해자/가해자 또는 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실 속에 있으며, 이들을 제약하는 구조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에 피해자/가해자와 행위자라는 구분법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김정선 2009, 19).³⁾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접근법과 개인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접근법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중범위 수준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주민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⁴⁾ 덧붙여 그동안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 가족

2) 하지만 낭만적 사랑과 경제적 행위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젤라 이저(2009)에 의하면 경제적 행위가 친밀한 관계를 저해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신화일 뿐, 현실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제적 행위와 친밀함을 혼합하며 때로는 서로를 축진시킨다고 한다.

3) 김정선(2009)은 또한 피해자 담론은 인권유린 현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한국사회의 성찰을 환기시킨 것이지 이주여성들의 주체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로 일방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상으로만 간주해왔지, 실제 이들이 유입국과 송출국 양쪽에 연결고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왔다. 이주여성들은 모국의 원가족과도 감정적 친밀성과 부양의 의무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에 이들은 이른바 '초국가적 사회의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⁵⁾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할 때에도 양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을 한국 내의 사회적 연결망과 모국과의 사회적 연결망, 양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방적인 동화의 대상자가 아닌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이러한 초국가적인 정체성은 구조적인 억압을 초월한 자유로운 행위자성의 구현이 아니라, 결국 '여기'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망과 이들의 한국생활의 적응 및 정서적인 안정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토대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에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

4) 미시적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접근법을 흔히 '신고전경제학' 접근이라 칭하며 균형이론, 비용-편익분석, 신이주경제학 등의 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사회와 국가를 분석단위로 두는 '구조론적 관점'의 이론에는 노동시장분할론, 상대적 과잉인구론, 세계체제론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주네트워크'론을 들 수 있다(전형권 2008). 본 논문에서 사용한 중범위 수준의 분석에 대해 파레나스(2009)는 이주민들이 여러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감으로써 보다 큰 구조적 힘에 대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말한다.

5) 초국가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Glick Schiller는 'transnational social field'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며 Pries는 'transnational social spac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Levitt는 'transnational village', 그리고 Appadurai는 'translocality'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Vertovec 2001). 본 논문에서는 'transnational social fiel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던 만큼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여 왔다. 따라서 관련 연구 주제 역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5)와 여성가족부(2006) 등 중앙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각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윤애 2004; 정기선 외 2007; 김승권 외 2010). 그 외에도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여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형태를 비판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보호방안대책의 시행을 촉구하였다(소라미 2009; 김기현 2010; 김상찬/김유정 2011; 정도희 2012). 또한 한 지역에 집중하여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2011)는 서산시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상태를 연구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방지해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서는 상생하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정과 강현민(2011)은 그동안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중심의 다문화가정 연구를 탈피하여 연구적 관심 및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연구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과 갈등, 그리고 그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부적응 및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강유진 1999; 설동훈/윤홍식 2005; 김오남 2006; 양순미 2006; 노하나 2007; 김자미 2013). 예를 들어 김영란(2006)은 다층적 차별구조 속에 있는 이주여성의 실태와 사회문화적 적응도를 연구하여 이주여성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주희와 정진경(2007)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적응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도 최근 들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김인선/배화옥 2012; 김유순 외 2012; 김계하 외

2013).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이다. 김영옥(2010)은 한국의 활자 중심의 일방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비디오 워크숍과 신체극과 같은 비활자적 매체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 이야기를 통한 상호이해를 강조하였다. 민가영(2011)은 다문화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사회통합에 어떠한 결과를 주었는지를 논의하였으며, 박철민(2012)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요인들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갈등양상이나 다문화가족의 사례분석을 통해, 역으로 원활한 사회통합에의 길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이주연/김성일 2006; 박명호/김정현 2010; 박충선/배나래 2011).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이주재와 김순규(2010)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경미(2012)는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주 초기에는 가족연결망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른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 역시 중요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연희 외(2012)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기반을 다졌다. 박순희와 조원자(2013)는 이주여성과 일반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을 비교하고 있는데, 일반여성이 이주여성보다 대체로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은 이주여성이 사회적 연결망의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흐름들을 살펴보면, 이주여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지적하느라 본의 아니게 무력한 이주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한국내의 생활에 치중함으로써 이주여성이 모국과 맺고 있는 관계성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사회적 연결망 연구의 경우, 대부분 양적인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의 내밀하고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담아내는 데는 제약

이 있다. 질적 연구의 경우(황정미 2010)에도 사회적 연결망을 한국내의 연결망에 한정지어 분석함으로써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갖는 이주여성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 검토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한국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통해 초국가적 행위를 탐구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더욱이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을 한국과 모국 양측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정체성을 고찰한 시도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초국가주의 측면에서의 이주 연구는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Vertovec 2001). 1970년대에 이미 '초국가주의'라는 개념을 제기한 서구사회에서의 연구가 그리한데, 갑작스럽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한 한국사회에서의 연구의 축적은 더욱 빈약할 수밖에 없다.⁶⁾ 따라서 심층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사례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초국가주의와 사회적 연결망

과거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로 유입이 되면서 모국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유입국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존재라고 상정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주자의 정착과정을 동화와 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하지만 전지구화의 물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몇 십 년 사이의 이주의 흐름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주자들로 하여금 과거와는 달리 모국과의 연결을 쉽게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왔고,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는 역이주와 순환이주, 후속이주와 같은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등장한 새로운 분석틀이 바로 '초국가주의'이다.

초국가주의는 이주자가 출신국과 유입국 모두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두 가지 이상의 나라를 횡단하면서 삶을 엮어간다는 개념으로, 1990년대 들어 Linda Basch 등의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초국가주의라는 개념이 이주 연구의 중심에 등장하기 전에도 기존의 이주자들은 모국과의 일방적인 단절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았다. 국제정치적인 이유와 힘의 역학관계로 인해 모국과의 교류를 차단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이주자들이 서신과 전화, 송금 등의 방법을 통해 모국과의 연결을 지속해오곤 했었다. 그렇지만 교통수단과 통신매체의 다양화와 발전으로 이주자들은 과거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쉽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국과의 연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이주자들을 자연스럽게 '초국가적 이주자(transmigrant)'라고 지칭할 수 있다(Basch et al. 1994).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특징으로는 모국과의 일상적인 연계 뿐 만이 아니라 그 연계의 동시성을 들 수 있는데(윤인진 2012), 이러한 초국가주의는 출신국과 유입국을 연결하는 사회적인 영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Glick Schiller 1997), 이주자들은 두 사회를 연결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가적인 사회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Basch et al. 1994). 이제 이주는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이러한 과정에는 이주자들만이 아니라 모국에 남아있는 사회구성원들까지 참여하게 된다(Levitt and Glick Schiller 2004).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초국가주의가 자유로운 유목민처럼 모든 제약을 초월해서 영토를 넘나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용일(2009)은 이민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연구에서 초국가주의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은 초국가주의를 행위주체에 의해 구분을 한다. 예를 들어 Guarnizo와 Smith는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와 이주자들과 기업의 활동을 뜻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를 분리한다. 또한 Portes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는데, 이주자들 중 초국가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이주자들 중 1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이주자들이 추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위한 전략으로서 여기에는 생존적인 요소들이 늘 따라다닌다(Castles

6) Robert Keohane과 Joseph Nye의 『Transnational Relationship and World Politics』가 출판된 것은 1971년이다(이용일 2009). 또한 한국에서는 몇 년 사이 다문화와 이주에 관한 폭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최병두 2011).

2000; 김동엽 2000, 38 재인용). 또한 국경을 가로지르는 현상에도 영토적인 선호가 존재하기에 “결국 초국가주의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적인 사회적·지리적 공간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Faist 2010; 윤인진 2012, 23 재인용).” 따라서 초국가적인 현상은 국민국가에 묶여있으면서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Kearny 1995; 전형권 2012, 289 재인용).

이러한 초국가적 사회의 장 속에서 이주자들은 모국과 유입국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주를 촉발시키는 전지구화의 흐름이 존재한다하더라도 한 개인이 언어와 문화가 낯선 새로운 국가로의 이주를 단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주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그것을 추동하는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브로커와 결혼중개업소 등의 조직은 물론 종교단체 또는 이미 유입국에서 자리를 잡은 친구와 가족 등의 소개와 같은 사회적인 연결망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은 이동비용과 이동에 따라오는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구조와 행위를 이어주는 일종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박경태 외 1999). 또한 이주를 감행한 여성이 정착지에서 다시금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지해주는 다채로운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데, 관계 구축에는 이주여성의 개인적인 성향과 동기, 생존 전략으로써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함과 동시에 형성된 관계망이 이들의 행위와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주제와 김순규(2010)에 의하면 이주여성과 그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형성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고,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는 사회적 관계 구축을 증진시키며, 결국에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즉 형성된 연결망의 밀도와 다양성은 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체성의 확립은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짐으로써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연결망은 관계적 인간관에 기반을 둔(김용학 2003) 개인들 사이의 신뢰의 관계망이

기에(최창현 2006), 연결망 구축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이주여성들이 시혜의 대상자라는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결망은 대규모 자본의 이동,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자유로운 이주로 칭해지는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와는 달리, 사회자본이 빈약한 개인의 생존전략으로서 행해지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의 성격을 가지므로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동화정책을 전제하고 있었으며, 한국 내 가족 역시 이들에게 한국문화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이들의 초국가적 실천들은 아직까지는 거대한 정치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자녀양육과 송금과 같은 사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초국가적 행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이들이 모국의 가족들과 긴밀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초국가적인 실천과 유입국에서의 적응이 병렬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주여성은 모국과 유입국의 양쪽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상황에 맞게 변용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국가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7) 이에 대해 김현미(201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부권 가족적 복지모델에 담긴 성별 이데올로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설정하고 이주여성을 재생산 노동의 대체 인력으로 상상해 이주여성을 ‘가족’의 구성·유지·재생산이라는 틀에 종속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밥을 차려주는 여성’이 되는 것이었으며”(김현미 2012), “가부장적인 사고를 답습하고 있는 한국가족들에게는 이주여성은 ‘단일’과 ‘순혈’은 흐려지더라도 ‘부계’는 강화할 수 있는 도구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김혜순 2008). 이러한 왜곡된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강요에 대해 정병호(2013,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는 “다문화란 다언어·다민족을 전제로 한다.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것이 결국 다문화 사회의 지향점”이라면서 “결혼 상대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다문화정에서선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이주 여성의 문제는 가난한 여성이 겪는 문제와 중첩돼 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주 여성의 문제를 여성문제로서 여성이 극복해야 보편적 여성 인권신장 속에서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정병호 2012;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구성과 그것이 그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행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필자가 이전에 실행했던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에서 접촉한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때 알게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다문화화강사들이 소개해준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용자들 중에서 연령, 직업, 결혼기간, 출신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면접은 2012년 7월과 2013년 10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장소는 결혼이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 집 근처 커피숍, 센터 및 연구소 회의실이나 강의실을 활용하였다. 면접은 대상자들에게 먼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의 내용은 면접에 앞서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으며 이후에 녹취를 하여 면접노트작성에 활용하였다. 대화에 활용한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한국생활 적응과정, 갈등상황, 해결방안, 그리고 한국 내의 모국인 및 이주민 네트워크와 모국과의 연결망의 형성과 유지 등이며, 대화 도중 다른 참고할 만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융통성 있게 대화의 범위를 조절하였다. 면접은 각각 약 2시간 정도씩 이루어졌다.

이 중 <사례1>은 한국생활이 일 년 정도 밖에 안 된 상태라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면접조사 시 방문교사와 함께 하였다. 또한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집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약 있는 상황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표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다른 대상자들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미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다른 대상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생활 초반에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었기에, 사회적 연결망의 탄탄함 정도에 의한 적응과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면접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는 20대 3명, 30대 5명,

40대가 2명으로 총 10명이다. 2012년 면접대상자의 연령은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였다. 출신국은 베트남 출신이 3명, 중국 조선족 1명, 중국 한족 1명, 몽골 출신 1명, 필리핀 출신 2명, 태국 출신 1명, 그리고 캄보디아 출신 1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자녀의 수도 1명에서 최대 4명, 그리고 임신 중인 사람까지 다양했으며, 이혼을 한 <사례5>를 제외하고는 모두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결혼경로를 보면 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이 4명, 가족소개가 2명, 친구소개가 3명, 그리고 연애를 통한 결혼이 1명으로, 결혼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사회연결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역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면접대상자의 특성

	출신국	본인 연령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입국년도	본인직업	배우자 직업
사례1	베트남	20	고졸	대졸	2012	주부	은행원
사례2	몽골	25	대학중퇴	대졸	2008	주부	자동차 검사
사례3	중국 조선족	31	고졸	고졸	2004	주부	운수업
사례4	베트남	30	대졸	대졸	2010	통번역사	회사원
사례5	중국 한족	31	대학재학	대졸	2006	통번역사	회사원
사례6	베트남	44	고졸	고졸	2007	주부	농업
사례7	필리핀	35	전문대	고졸	2003	주부	농업
사례8	태국	32	고졸	대졸	2009	주부	농업
사례9	필리핀	43	전문대	중졸	2000	생산직	자영업
사례10	캄보디아	26	중졸	중졸	2008	주부	회사원

IV. 분석결과: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과 초국가적 정체성

1. 사회적 연결망의 공백

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 초기에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공백을 느낀다. 이들의 공통적인 한국생활 초기 경험은 낯선 언어와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인데, 이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한 외로움이기도 하며 동시에 부자유스러운 언어 구사력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공허감은 배가 된다.

<사례1>은 한국생활 일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비교해서는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출산으로 인해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신 방문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을 해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고 방문교사와 함께 인터뷰를 위해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역시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과일과 차를 챙겨주면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지만, <사례1>은 시어머니의 존재를 의식하느라 처음에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처음에 힘들었어요..... 4개월 정도는..... 나중에는 괜찮아요. (한국생활 만족에 대한 질문에) 나쁘다도 있어요. 조금 좋다도 있어요. 완전 좋다는 없어요.” <사례1>

한국사람 모임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친구도 없고, 유일하게 참석하는 모임이 가족들의 모임인데 가족들은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지 않고 현재까지는 약간의 의심어린 시선으로 <사례1>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들 모임에 가면) 그냥 들어요. 말 들어요. 왜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나하는 질문이요.” <사례1>

남편의 경제적 수입에 관해서도 전혀 아는바가 없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러 다니던 몇 달 전까지는 오고가는 차비 등을 비롯해서 조금씩 용돈을 받았지만, 현재는 아무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가족들의 내재된 불신이 존재했고 가족들 모임외의 다른 관계망 형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석한 방문교사의 말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가벼운 소풍 한 번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지켜보고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다문화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친정부양에 대한 의무감 내지는 자발적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었다.⁸⁾

이러한 가족에 의한 통제에 관해서는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사례4>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사례4>는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한층 작아지고 차분해졌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기 인권적인 것을 침해받은 사람이 많아요. 가족은 다 너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베트남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대해주면. 시댁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처음 오면 친구들도 없어요. 가족은 우리 센터에도 안보내주고. 핸드폰도 사용 못하게 하는 가족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생각 가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발견해도 (상담사가) 현행 법률상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도 가족이 받아주지 않아서 소용이 없어요. 저희도 상담도 해주는데 소용이 없어요. 의사소통 안 되고 문화 차이 때문이

8)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가족 지원은 아직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가시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허오영숙(2013)은 그 이유로 남성 중심적인 다문화주의, 노동과 결혼의 이주 목적을 구분하는 사회인식,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왔다’는 낙인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경계심을 꼽았다.

라도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해요. 하지만 이주여성에게 유리한 게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저희 통번역도 힘이 약해요..... 보통은 한국 사람이 원하는 것만. 아무래도 여기 오면 다 약자예요.”<사례4>

한국생활 초기의 사회적 연결망 부족이나 부재로 인한 갈등은 한국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다른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모국의 가족들과의 연락을 통해 한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는 경우가 많았다.

“컴퓨터로 심심할 때마다. 메신저나 화상채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짜증난다고(웃음)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외로움은 덜해요.”<사례2>

한국생활 초반기에 이들의 사회연결망은 모국의 가족과 친구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발달로 인해 손쉽게 연락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화상채팅을 주된 연락방법으로 취하는 경우와 메신저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었으나, 한국생활 초기에는 주로 향수병을 달래기 위한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한국생활 초반기 이들의 정체성은 아직은 모국에의 감정적 애착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영토화 된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

익숙한 세계에서의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가족과 친구들은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곳에 존재하므로 이는 일종의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상, 상실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이들은 차차 사회적 연결망의 재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물론 이런 관계의 형성을 시작하는 데에는 남편과 시부모의 믿음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야만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가족들이 옆에서 한국어 학습을 지지

해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의 대화와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매체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한국어를 익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문화센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는 이들에게 있어 가족외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면접 대상자인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문화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한두 번 이상 참석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만남을 시작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사례7>과 <사례8>은 특히 다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을 표했으며 센터에 나가는 주된 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와 한국어 배우기, 그리고 다른 이주민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점 등을 꼽았다. 이는 실제로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활동들을 해온 <사례4>와 <사례5>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조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하다가 나중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동화도 읽어주고,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장소도 없고 대개 결혼이민자 집에서 하니까. (.....)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요새는 가끔씩 음식 하면서 한국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것도 필수사업이에요. 일 년에 네다섯 번 하는데 저희 센터는 그게 인기가 많아서 자주 했었어요. 요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요. 아무래도 여기 와서 힘들고 외로워요. 그리고 한국음식 계속 먹으니까 가끔씩은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해먹으면 귀찮아서 같이 모여서 같이 해먹으면 맛있어요.”<사례4>

“이주여성모임도 프로그램으로 있어요. (.....) 어떤 때는 이주여성은 한국어교육을 원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나라별로 모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축제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떤 때는 다 같이 모여요. 왜냐면 센터도 같이 다니니까 서로 잘 알아요.” <사례5>

특히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자신감이 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참을 원했으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배우자가 함께하기를 희망했다. 더 나아가 몇몇 여성들은 한국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사례10>은 자신은 한국어 수업이 가장 좋았으며, 자신의 자녀는 동화읽기와 만들기 등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했으며, <사례9>은 한국생활 초기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생활의 적응에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네트워크)을 활용할수록 한국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생활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했다. 실제 일부 면접대상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만난 모국인 친구들과 깊은 친구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때로는 출신국이 다른 이주여성들과 친분을 맺기도 하였고, 한국인 선생님들을 통해 다른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넓혀갔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친구소개나 가족소개 등으로 이주를 한 여성들의 경우, 기존의 관계망을 시작으로 알음알음 교제를 넓혀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주여성들은 특별한 이름을 갖는 모임은 아니더라도 같은 모국 출신의 사람들끼리 비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있었으며, 언어적인 소통의 자유로움과 모국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의 해소를 이런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유로 꼽았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어요. 고국언어라서 언어적인 소통이 잘 되어서 좋아요. 또 모국에 대한 향수도 달릴 수 있어서.”<사례6>

<사례5>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근무하기 전에는 방문지도교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이주여성들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중국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여성의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많은 의지가 되었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많이 대화하고, 어려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 십일조는 자기 능력되는 만큼.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니까. 저도 가끔 하는데 하는 것 보다는 받는 게 많아요. (웃음) 정서적으로 많이 도와주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줘요. (.....) 교회 다닌 지는 이년정도. 처음에는 돈만 집중했었어요. 오로지 돈 돈 돈. 그런데 교회 들어가고 부터는 중요한 것은 인심이에요. (.....) 처음에 이혼 과정에서 정신병원도 다녔었어요. 약도 받고. 남자에 대한 믿음이 완전 깨지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사례5>

모국과의 연결망 역시 더욱 탄탄하게 구축이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들은 송금과 물품지원, 그리고 가족초청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직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하며 현재 개인 용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1>의 경우에는 모국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지만, 다른 면접대상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제가 먼저 와가지고 임신해서 부모님을 초청했죠. 처음에 두 분 왔다 가셨어요. 처음에 와서 두 분 다 이 년 동안 계시다가 가셨고. 저는 애기 낳고 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시고. 아버지는 일하는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물래(웃음) 나가서 일하고.” <사례5>

“월 1회 정도 주로 물품을 보내요. 현금지원은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못해요. 그리고 엄마만 계신데,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으로의 초청은 힘들어요.” <사례6>

<사례4>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가족초청을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초청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서 뭐해요. 저는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힘든데 친정부모까지 오시면 힘들죠. 아르바이트 정도 할 수 있으면 와도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 베트남에 계시는 게 낫죠.” <사례4>

모국의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가족초청 외에도 모국과의 연결망의 유지는 이주여성이 모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도 나타나는데,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자식과 함께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배우자가 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수가 많은 경우, 모든 가족이 한 번 움직이는 데는 비행기 표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금액이 들고,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앞에서 배우자는 그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다. 배우자의 배려를 느낀 여성들은 이후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한국생활이 점점 만족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외부로 확장해나가는 연결망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부적으로 끈끈해지는 관계성 역시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을 통해 점점 한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는 곧 모국에 고정되었던 정체성이 한국인으로서의 제영도화 된 정체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3. 초국가적 정체성의 형성

사회적 연결망의 범위가 넓어지고 밀도가 깊어질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안정적인 정주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이는 이들의 정체성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면접 조사 결과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소속감과 관련된 정체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과 자존감과 관련된 정체성이었다.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하자면 동일한 것은 아니나 뚜렷하게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불안정한 체류신분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자격을 획득했을 때 비로소 이들은 정서적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모국 음식에 대한 욕구가 그다

지 느껴지지 않을 때 한국인이 다 됐다고 느끼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한국인 다 됐다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몽골음식) 먹고 싶을 때 먹었는데 요새는 맵기지가 않아요(웃음) 저는 작년부터 안 맵겼어요.” <사례2>

“(중국음식) 저는 잘 해서 먹어요. 지금도, 사실은 김치 같은 것도 어제도 다문화 센터에서 놀러갔는데, 저녁에는 돈가스만 주더라고요. 돈가스하고 샐러드하고, 김치를 어디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니글니글 거려서요. 김치 요만한 거 사다가 손으로 집어먹고 그랬어요. (.....) 한국사람 다 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제 새삼스레 느껴지네요.” <사례3>

“주변에서 한국사람 다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좋아요. 한국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가족들 다 좋고. (.....) 농촌이라서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례6>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모국의 문화를 모두 지워버리고 한국문화에 완전히 동화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고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거주국에서의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고 싶어서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준한국인의 대우를 받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국적 취득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배우자에게 소속된 권리며, 상황에 따라서 박탈될 수 있는 권리이다.⁹⁾ 따라서 이들 스스로는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주장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써 이들에게 ‘한국인 되

9) 소라미(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현행법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생사박탈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은 한국 입국에서부터 귀화 전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까지 모두 배우자의 동행 또는 증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가정폭력에 시달릴 경우에도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더욱이 언어폭력과 같은 무형의 폭력은 확실하게 증명하기도 어려운지라,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라미(2009)의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를 참고.

기'는 중요하게 된다.¹⁰⁾ 이들은 이미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각오를 하고 온 이주자들이기에 기본적으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수용하면서 살아 가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모국인 혹은 이주여성들끼리의 모임과 결속 혹은 한국인들과의 관계 역시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되며 한국어 실력이 발전할수록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단편적이거나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속 이야기를 허물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생활의 안정감은 강해지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진다. 또한 이러한 소속감의 강화에는 자녀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자녀가 바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점점 성장할수록 때로는 배우자보다도 자녀가 더 의지가 된다.

“한국생활에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그야 아무래도 자식이.... 애들한테 쫓리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는 제가 없어도 자식들 많으니까 챙겨주니까요. (.....)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다보니까 조금 의지가 되더라고요. 어딜 가도 꼭 데리고 다녀요. 든든해요. 첫째가 가장 의지가 되고 든든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례3>

“아들. 친정부모보다도 아들. (이혼하시기 전에도 아드님이 제일?) 그때도 남편은 의지가 안됐어요.” <사례5>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대한 질문에도 이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언급을 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경우나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됐을 경우 이들은 자녀의 교육 관련으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10) 이에 관해 김영옥(2007)은 이주자의 완벽한 성원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주여성들은 일단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민이 되고 이후 오랜 기간 인정투쟁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참여적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애들 교육 과정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뒤를 해줘야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육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2>

“국악원 다니면서 언니들 많이 사귀었어요. 그 언니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무리 그 언니들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직접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하게 다문화라고 하면 애들 교육상 문제가 가장 큰 고민 같아요. 다문화를 떠나서 똑같은 사람이고 평등한데. 똑같은 방식도 알려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3>

즉 이들이 느끼는 한국인으로서의 귀속감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모성애에 기반하며,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¹¹⁾ 덧붙여서 한국에서의 삶이 모국에서의 삶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생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감으로 표기된다.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더욱 그렇다.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 기르고 있는 <사례5>의 경우,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에 있을 때, 무용 그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중국 고전무용. 할아버지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만두고,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연치 않게 국악원을 다니고 있어요. 장구도 치고 사물놀이도 배우고, 북, 장구, 팽과리 중국에도 다 안ذاك요. 작년부터 여성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봉사도 하고, 큰 애들도 거기 다니면서 민요도 배우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례3>

11)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초국가적 사회의 장의 단계를 ‘결혼 후, 자녀 출산 후, 그리고 친정방문 후’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한 심영희(2012) 역시 자녀출산이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국가적 정체성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에 데리고 중국 갈 생각은 없어요. 애가 컸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보내는 거고,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기회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배워도 배워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학교가 망해서 졸업증명서 같은 거는 뗄 수 없어요. 작년부터 제가 김정고시 초등학교부터 봤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방송통신대학 들어갔어요. 제가 졸업 못할까봐 중국어과(웃음).” <사례5>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오히려 모국과의 연결도 강해진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약했던 한국생활 초기에는 외로움을 달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모국의 가족과 연락을 지속했지만, 모국의 가족들을 위한 송금과 가족초청과 같은 일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알아도 시댁식구와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는 이들의 의심어린 눈초리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가족초청의 경우 아직 국적 취득 전이거나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제도적인 규제가 있기에 현실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친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이들은 초국가적인 실천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본국 송금에 대한 질문에) 저는 조금씩 보내주거든요. 두 달에 한번 정도? 많지는 않아요. 조금 줄 때는 십 만원, 이십 만원.” <사례2>

“첫 애 낳았을 때는 그런 게(가족초청)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사례3>

여기에 더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통신매체의 발달은 이들의 모국과의 일상적인 연결을 돕는데, 그 연결은 실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초국가주의의 근본적인 특성인 연계와 동시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

다.¹²⁾

“저희는 컴퓨터로, 메신저나 스카이프로 동영상통화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유행하니까, 카카오톡 하면 되게 편해요. 저는 얼마하고는 거의 카카오톡으로 해요. 그래서 통화비용은 한국보다 싸요.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사례4>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플 받아서 국제전화. 일반 전화도 지금은 국제전화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국내전화하고 비슷해요. 어플 되게 많아요. 30분까지는 무료해주니까. 이거 30분 쓰고 저거 30분쓰고. (웃음)” <사례5>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새롭게 정착한 지역 또는 장소(local)에서 감정적인 안정감을 획득해야만 모국과도 더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거주국에서의 확실한 체류자격의 획득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 획득이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흡수하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그리고 그러한 적응 과정에서 친밀함과 각종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존재 유무와 관계망의 다양성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단단한 사회연결망은 선순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이주여성들이 모국문화를 유지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에 고정되지 않고 탈영토화 된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IV. 결론

한국사회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사상을 넘어서서 다문

12) 이주여성의 휴대전화 경험을 연구한 이경숙(2008)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에게 휴대전화는 모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품이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이들은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초국가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탈영토화 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화사회로의 전환을 논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다문화사회 담론의 중심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들의 한국 생활의 적응과정을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와 형성, 그리고 확대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를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결혼중개업소와 같은 상업적인 업체는 여전히 이주를 촉발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었고 이미 한국에 이주해온 가족이나 친구 역시 후속이주를 이끄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 후에도 사회연결망의 확장을 이어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 자존감, 심리적인 안정감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는 한국생활 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추구하는 한국인 되기는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녀에 대한 모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내 사회적 연결망 부재는 한국 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로 연결되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이주여성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원했으며 이를 위한 연결망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 부재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불안 및 한국사회 부적응과 정보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이주자 2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적응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사회연결망의 구축과 유지에는 한국 내의 연결망 뿐 만이 아니라 모국과의 연결망 역시 포함되는데, 이러한 초국가적 행위자로서의 실천에는 한국에서의 적응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구축될수록 한국생활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이는 이들의 초국가적 실천을 돕는 기제로 작용하

었다. 즉,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실천들은 한국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는 곧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정체성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곧 초국가주의와 적응 및 사회통합의 개념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이전의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주 이후의 한국 내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과 모국과의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를 통한 초국가적 정체성 확립이 이들의 적응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연결망 외에도 여전히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이전의 주요한 사회적 연결망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로 이주여성들을 현혹시키는 결혼중개업소 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주여성 뿐만이 아니라 한국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도 활발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2년 7월과 2013년 10월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주요 조사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인터뷰이의 이야기들을 모두 균등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 확장 과정의 성공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패 사례와의 비교 분석은 의미 있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인 행위들을 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국 가족들의 이야기들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이주여성들의 초국가적인 실천으로 인한 모국 가족들의 변화의 양상을 고찰해보는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김경미(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5권. 제2호.

김동엽(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2호.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김영옥(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2호.

김영옥(201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통합: 정책과 경험 사이에서.”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제2호.

김용학(2003). 『사회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김정선(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귀속(belonging)의 정치.”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논문(미간행).

김철수(2011). “다문화사회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상태: 충남 서산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제24집.

김현미(2012).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이소희 엮음. 보고서.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노연희·이상균·박현선·이재원(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대한 연구-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2호.

라셀 살라자르 파레나스(2009).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역. 여이연.

민가영(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박경택·설동훈·이상철(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제

33집. 겨울호.

박순희·조원탁(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비교: 이주여성 및 반여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2호.

박주희·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제4호.

박철민(2012).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

비비나아 A. 켈라이저(2009). 『친밀성의 거래』. 아시아여성연구소 역. 에코리브르.

소라미(2009).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16권. 제2호.

소라미(2013).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여성.”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이주여성인권포럼. 오월의봄.

신종호·최석현(2013).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No. 118.

심영희(2012). “초국적 장과 초국적 정체성.”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이소희 엮음. 보고서.

윤인진(2012).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28호.

이경숙(2008). “이주 여성의 휴대전화 경험과 관계 맺기.”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2호.

이미정·강현민(2011).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실태 조사 연구: 강화도 대부도 영종도 영흥도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7-2호.

이용일(2009). “트랜스내셔널 전환과 새로운 역사적 이민연구.” 『서양사론』. 제103권.

이주재·김순규(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4호.

전형권(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

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제49권.

전행권(2012). “초국가 이주와 국민국가: 한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3권.

정도희(2012).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최병두(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제1호.

최창현(2006). “조직의 비공식 연결망에 관한 연구: 사회연결망분석의 적용.”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하오영숙(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한울 아카데미.

황정미(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제4호.

Basch, Linda, Glick Shiller, Nina and Blanc, Cristina Szanton(1994). *Nations Unbound*. New York: Routledge.

Glick Schiller, Nina.(1997). “The Situation of Transnational Studies”. *Identities*. Vol. 4. No. 2.

Levitt, Peggy and Glick Schiller, Nina(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 No. 3.

Vertovec, Steven(2001). “Transnationalism and Ident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27. No. 4.

김현미(2013). “다문화정책, 부권 가족적 복지모델서 탈피해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5/0200000000AKR20130515198600372.HTML?from=search>. (2013년 12월 18일 검색)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정병호(2012). “이주민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 부여하는 존재.”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52008#UoHDOKawfIV>. (2013년 10월 25일 검색)

정병호(2013). “행복한 ‘완득이’ 를 위하여.”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801000219&md=20130805224900_AT. (2013년 10월 25일 검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 논문투고일 : 2013년 11월 13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11월 22일 |
|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3 (2013)

**Social Network and Transnational Ident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 a Focus on the Process of Adapting to Life in Korea**

Jin-Bae Sul

(Institute of Public Affairs, Yonsei Univ.)

So-Hee Kim

(Department of Anthropology, Hanyang Univ.)

Eun-Hee So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network and transnational ident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To this end, this study uses in-depth interview surveys to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the social network and transnational ident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are formed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network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igr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These women migrated to Korea through a social network and continued to expand their network after coming to Korea. Through this process, marriage migrant women are able to acquire a sense of belonging in Korea and enhance their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tability. Second, marriage migrant women do not want unilateral assimilation: they wish to gain full rights as a Korean citizen. The motherly love of these women for their children plays a key role in this matter. Third, because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networks for marriage migrant women include networks within Korea and with their

mother country, the practice of these women as transnational actors is largely affected by their adaptation to life in Korea. This implies that the concepts of transnationalism,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re not in a mutually exclusive relationship, but are rather open to interaction.

Key words: Marriage Migrant Women, Transnationalism, Social Network, Transnational Identity, Socio-cultural Adaptation